



라이베리아의 전력사업 현황

1. 개요

- 국토 면적 : 11만 1370km²
- 인구 : 281만 명
- 수도 : 몬로비아
- 언어 : 영어
- 통화 : 미국 달러
- 환율 : 1
- 국내 총생산 : 9900만 달러
- 주파수 : 60Hz
- 전압 : 120V
- 1인당 소비전력량 : 217kWh

2. 일반 사항

라이베리아는 서부 아프리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의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공화국이다. 라이베리아는 북쪽으로 시에라리온과 기니 그리고 동쪽으로는 코트디부아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서쪽의 마노 강으로부터 코트디부아르 국경을 따라 흐르는 카발라 강까지 600km의 대서양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좁은 해안선에 연하여 있는 지대가 융기하여 고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내륙에 유일한 작은 산계(山系)를 구성하고 있다. 해안에서 떨어진 내부는 대부분이 울창한 열대림으로 뒤덮여 있다.

이 나라는 1816년에 설립된 미국식민 협회(ACS)의 추진으로 자유 흑인미국인을 아프리카에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1821년에 미국에서 이주해 온 라이베리아인의 정착이 시작되었다. 1841년에 정부를 식민지 개척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라이베리아는 1847년 7월에 미국헌법을 본보기로 한 헌법을 가지고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일어난 쿠데타에 이어 헌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1990년 이후의 산발적이며 격렬한 내전은 라이베리아 경제의 대부분을 파괴하였으며, 특히 수도 몬로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파괴됨으로써 많은 사업가들이 그들의 자본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났다. 전투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대부분 종식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무 농장을 가지고 있는 라이베리아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고무의 수출국이었으며 철광의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이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스웨덴의 조인트벤처가 남부

산 인근에서 조업을 시작함으로써 철광 석 사업이 고무 생산을 누르고 주산업으로 올라섰다. 광활한 목재용 나무를 산출하는 삼림지(森林地)와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운모(雲母)는 라이베리아에게 큰 경제적인 잠재력을 제공하는 부존 자원이지만 그 동안 현실적으로는 단지 몇몇 경공업제조 기업만이 육성되었다.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휘관들의 마구잡이식 자원 개발로 빚어지는 황폐화 등으로 이웃나라로 탈출한 라이베리아 피난민들은 75만명으로 추산되며 계속되는 정치 및 경제의 불안정은 이들의 본국으로의 복귀와 복구사업의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는 1943년 이후

산 인근에서 조업을 시작함으로써 철광 석 사업이 고무 생산을 누르고 주산업으로 올라섰다. 광활한 목재용 나무를 산출하는 삼림지(森林地)와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운모(雲母)는 라이베리아에게 큰 경제적인 잠재력을 제공하는 부존 자원이지만 그 동안 현실적으로는 단지 몇몇 경공업제조 기업만이 육성되었다.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휘관들의 마구잡이식 자원 개발로 빚어지는 황폐화 등으로 이웃나라로 탈출한 라이베리아 피난민들은 75만명으로 추산되며 계속되는 정치 및 경제의 불안정은 이들의 본국으로의 복귀와 복구사업의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는 1943년 이후





미국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3. 전력사업 개황

가. 라이베리아 전력공사(LEC)

내전으로 인해 국가소유의 전력사업체로서 전국에 걸쳐 발전, 송전 및 배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전력공사(LEC)는 설비에 큰 손상을 입었다. 변압기에서는 절연유가 뽑혀 나갔으며, 발전기와 변압기의 동선 권선은 제거되었고, 제어기기와 스위치기어 그리고 송전선과 배전선의 많은 회선과 케이블이 탈취되었다. 따라서 라이베리아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 그리고 배전 변압기 등의 복구사업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1998년 중반 현재 부시로드 아이랜드에 있는 튜크 발전소는 1만 3천kW의 맨바브콕 앤드 윌콕스(B&W) 저속 디젤 발전기 3대 중 1대만이 복구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출력은 약 8천kW 수준이다. 인근에는 미쓰비시의 중속(中速) 엔진 5천kW 한 쌍이 아직 가동중단 상태로 남아 있다. LEC는 1970년대식 브라운 보베리 사(BBC) 가스터빈 네 기를 몬로비아에 설치하고 있으나(16,000kW×2대 및 19,000 kW×2대) 이 발전소 역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마운트코피 수력발전소

라이베리아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는 두 단계로 건설된 마운트코피의 수력발전소로서 각각 15,000kW 알리스 찰머

스 발전기 한 쌍으로 이루어졌으며 1984년에 최종적으로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는 제어기계의 대부분과 케이블 배선 그리고 발전기의 동선이 제거되는 등의 심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댐에 대한 구조적인 손상이 없으므로 방수로를 계속해서 단아두어 멀리 발전소 끝까지 새로운 하천 루트를 형성하고 있다. 1993년에 스테인리 엔지니어스는 마운트코피 댐과 발전소를 완전복구하는데 4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발전설비가 계속 손상되고 있어 복구비가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이베리아의 지방 전력사정은 총 2만 kW의 열 개의 분리된 발전기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드문드문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전쟁 전에도 이들 발전소들은 이미 오래되었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많은 발전소가 연료구입 자금이 없을 때면 오랜 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아무도 현재 이 발전소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봉레인지에 있는 두 개의 광산회사가 합계 용량 약 15만kW의 큰 디젤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몇몇 자가용 발전소가 있었으나 현재의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연합(UN)의 자료에는 1996년 현재 라이베리아는 합계 33만 2천k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은 4억 8800만kWh라고 되어 있으나 이들 수

치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의 첨두수요는 7만 4천kW인 것으로 보도되었고, 1998년의 첨두수요는 약 6천 kW였다.

다. 전력설비의 복구계획

라이베리아의 전력부문 복구활동을 보면 우선 발전이 가능한 약 5만kW의 설비를 복구하고 5, 6개소의 변전소를 계통에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LEC는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의 요금은 운영비용을 "어림짐작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C는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도 얼마간의 사전요금납부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4. 송전 및 배전

전쟁 전에는 마운트코피의 스위치 야드에서 부시로드까지 40km에 달하는 69kV 송전선로가 보미힐스, 카카타 및 로버츠필드를 포함하는 몬로비아 지역을 공급하는 통합 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이것은 시 중심을 커버하는 부분적인 환상간선에 28만kVA 용량의 변전소 15개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공급의 유연성과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다. LEC 그리드는 몬로비아로부터 류캐넌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간 145km의 선로를 제외하면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LEC는 다양한 전주와 철탁 형태의 선로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파이프식 철탁, 목주 그리고 앵글에 의한 철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중에 송전선로 그리드의 약 75%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송전선로의 전주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 전에 LEC는 69kV 송전선로 433km와 12.5kV 배전선로 431km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이베리아의 수력발전 설비확장 계획의 일부로서 컨설턴트들은 몬로비아-모가투오-다나네(코트디부아르) 루트의 230kV 송전선로 350km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5. 새로운 발전소들

1982년에 LEC는 22억 달러를 투입하여 116만 2천kW 용량의 새로운 수력발전 설비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설비확장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마운트코피의 14만 4천kW의 설비 확장과 69kV 송전선로 640km의 건설이다. 제안된 사이트는 몬로비아 서북쪽 약 190km의 비아 강

에 위치하게 된다. 1982년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프로젝트에는 소위 말하는 비아 스토리지/SP4 댐을 중심으로 하여 세인트 폴 강을 따라 여러 곳에 건설되는 120만kW의 새로운 발전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설비를 건설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6년이 소요된다. 다른 발전소는 로파-마노 디버전이라는 51만 8천kW 프로젝트, 세인트 존 강의 22만 5천kW 발전소 그리고 두 개의 다국적 프로젝트로서 코트디부아르와 공동 건설하게 되는 카발라 강의 25만kW 발전소와 시에라리온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 마노강의 15만kW 발전소이다. 이들 새로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당초에 230kV 송전선로의 도입을 채택하였었다.

6. 장래의 전망

라이베리아가 몇 년간의 인프라스트럭처 재건에 몰두하여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한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 서비스회사들은 적절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조직구조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과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설비를 건설 및 재건하고 고객 등이 전기요금 납부하도록 하는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마케팅 능력과 새로운 재무관리 및 통제시스템의 어려운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라이베리아는 지리적인 위치와 실질적인 수력발전의 잠재력을 볼 때 전력수출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많은 인구와 점점 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실인 것이다. 한 가지 계획상의 문제는 LEC는 이웃 나라들이 50Hz/220V 시스템인데 비하여 60Hz/120V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의 전력설비는 이미 대규모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 재건 프로젝트에 이를 포함시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 주파수와 전압특성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udi 'Country of the Week', 1999. 5. 27)



리투아니아—원자력발전소 폐쇄와 유럽연합(EU) 회원 자격

1. 체르노빌형 원자력발전소의 운명

빅토라스 발렌투케비시우스씨는 리투

아니아의 경제성 차관으로서 이 발트제국(諸國)의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에너지부문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남동부 벽지에 위치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체르노빌형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계속해서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가 그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리투아니



이는 유럽연합(EU) 회원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는 “유럽국가들이 체르노빌 사고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납득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원자료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원자료를 폐쇄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원자료가 얼마나 오래 동안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몇 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과 1987년에 각각 운전해 들어간 150만kW 원자력발전소 2기가 소련이 리투아니아에 남겨놓은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유산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산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리투아니아와 서방국가들 사이에는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태도 여하에 따라 1999년 12월에 EU는 이 나라의 가입 승인을 위한 회담을 하게 될 것인지 안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유럽연합(EU)의 즉각 폐쇄 요구

EU와 유럽위원회(EC)의 관리들은 리투아니아의 체르노빌 발전소가 서방측 안전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원자로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원자료를 폐쇄하지 않으면 EU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리투아

니아는 다른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기술적인 지원으로 원자료가 이제는 서방측의 오래된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폐쇄요구는 협박과 공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으로부터의 안전개선을 위한 1994년의 3600만 달러의 원조 조건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조금을 받는 대가로 리투아니아 정부는 원자로의 핵연료채널이 못쓰게 될 때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 세기초에는 조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가 눈앞에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몇몇 전문가들이 첫번째 원자로는 2001년을 넘겨서 가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2005년까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총전력 생산량의 80% 공급

리투아니아 총전력 생산량의 약 80%는 이그날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되고 있다. 관리들은 이 나라가 원자력보다 약 두 배가 비싼 대체전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 나쁜 것은 앞으로 중유나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오래된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은 리투아니아의 온실가스 방출의 세어를 증가시키리라는 예측이다. 발뉴스 당국은 이그날리나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는 25억 달러 내지 30억 달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U도 지원을 제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서방 사람들은 체르노빌 때문에 이그날리아에 대하여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서방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것은 좋지 않은 농담이다”라고 발전소에서의 사고위험을 계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안드리우스 배그도나스 씨는 말한다. 그러나 유럽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C의 에너지 담당 이사회의 수석 행정관인 로리스 로시 씨는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발전소 폐쇄를 원한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4. 5,000명 발전소 종업원의 거취문제

정치인들이 이그날리나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발전소의 5,000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일자리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수십 명의 종업원들이 발뉴스로 상경하여 원전 폐쇄시에 그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발렌투케비시우스 씨는 “사회적인 결론은 에너지전문가의 충고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그날리나의 폐쇄의 의미와 그 종업원들의 재교육과 재배

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하는 문제는 이들 종업원들이 모두 러시아어 사용자들로서 리투아니아어를 모르며, 소련의 여러 곳으로부터 집단으로 이주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전소 종업원들과 가족 3만 2500명은

소비에트에서 발전소 직원용으로 건설한 러시아인들의 고립된 마을 비사지나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그날리나의 안전 서비스 부서에 근무하는 제나디 젤토브리우치 씨는 만일 발전소가 폐쇄되면 최소한 종업원의 70%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는 "만일 당신이 젊은 사람이라면 그나마

한 가지는 유리할 수도 있다"며 "당신은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조국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이런 걱정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작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자료 : 'Business Week, 1999.7.5)



원유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 석유회사들의 이익 증가

기름이 남아다더니 이제는 부족하다?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생산량 삭감이 성공하고 아시아경제가 활기를 되찾음으로써 다가오는 달에 주요 석유 생산회사들은 큰 돈을 버는 역전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수입의 붕괴를 지켜본 이후 대형 석유생산회사들은 1999년 하반기에는 이를 크게 만회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대해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베어, 스테안스 앤드 컴퍼니의 분석가인 프레더릭 P. 류퍼 씨는 1999년 3/4분기에 상위 16개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이 85% 그리고 4/4분기에는 100% 까지 뛰어 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퍼스트 콜 코퍼레이션에 의하면 국제석유

자본인 메이저들의 수입이 1999년 5%가 증가할 것이며, 2000년에는 27%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분석가들이 아직도 너무 보수적이라고 믿는다"라고 커스트 콜의 조사부장인 찰스 L. 힐 씨는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영터리 같은 싼 유가라고 생각하는 수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2. 유류 비축량의 급속한 감소

석유가격의 회복은 첫째로 개선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OPEC와 서방 석유회사들 간에 생산량 삭감을 위한 제휴가 있었고 수요면에서는 아시아와 가스를 계절스럽게 소비하는 미국에서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되었다. 석유산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1일 100

만~150만 배럴 앞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석유 비축량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산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비축량이 빠르게 고갈되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세브린 코퍼레이션의 에너지 예측부장인 케네스 헤일리 씨는 말한다.

몇몇 분석가들은 그것이 원유가격을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배럴당 11달러에 조금 못미치던 웨스트 텍사스 인터메디에이트의 벤치마크 가격이 1998년 12월에는 1997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20달러 고지를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퍼스트 올버니 코퍼레이션의 한 디비전인 FAC/에퀴티의 로버트 크리스텐센 2세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메디에이트의 가격이 1999년 하반기에 배럴당 22 내지 23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베어 스테안스의 류퍼 씨는 “1배럴에 27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3. 석유회사들의 주가 상승

이와 같이 흥분되는 상황이 되리라는 예상은 유류 저장을 또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16개 석유부문 선도회사들의 아멕스(미국증권거래소) 지수가 1999년초 이후 거의 23%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가격 폭락을 유도한 바 있는 이와 같은 높은 석유 가격이 OPEC 회원국들로 하여금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관측자들은 OPEC의 회원국들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에는 OPEC 회원국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생산량에 대하여 예전보다 더 단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5월과 6월에 “OPEC 방침은 대단히 철저하게 준수되었으며 90% 내지 9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크리스텐센 씨는 지적하고 있다. “당신은 페르시아 만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4. 석유탐사와 개발사업의 중단

새로운 강력한 통제력의 본산은 왕년의 경쟁상대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으로서 이란의 개혁주의자인 모하르드 카타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국왕을 대신하여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동생 압둘라 왕태자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새 대통령은 과거에 독자적인 생산한도를 설정하여 증산을 일삼았던 정책을 바꾸어 유가를 올리려는 OPEC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석유생산 회사들도 탐사와 개발사업에 뚜껑을 덮어둠으로써 이를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메이저들에 의한 엄청난 비용절감 프로그램은 1배럴 27달러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거대기업들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아모코(Amoco)는 2001년에 연간 약 30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약속하고 있으며, 아르고(ARCO)의 합병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로 연간 1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999년 초에 금융시장으로부터 격심한 공격을 받은 바 있는 로열 더치/셸 그룹은 2001년까지 연간 운용비용 25억 달러를 절감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고유가 유지의 조건

석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 안정된다는 것은 석유 생산자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는 한에서 교묘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행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가를 그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면 OPEC가 현재의 생산할당량—순위에 대한 몇몇 의견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에 대해 땀을 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안정이 장기적으로 OPEC를 결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자료: 『Business Week』 1999. 7. 26)



일본 — 규제완화와 전력회사에 나타나는 변화의 징후

1. 전력회사의 간이휴대전화 (PHS) 사업

칸사이(關西) 전력의 간이휴대전화(PHS) 아스테르 칸사이는 경영부진에

빠졌다. 1998년도 결산설명회에서, 1998년 여름의 자회사화(子會社化) 등

의 대응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와사키(岩崎) 부사장은 “설비투자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한마디는 전력회사가 “보통의 주식회사”로 탈바꿈하는 고동(鼓動)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본래 주식회사란 자본금을 밑천으로 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고, 얻어진 자금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갖추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즉 밸런스 시트의 우측에 제약이 있으며, 그 제약 안에서 보다 높은 리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며, 투자수익률이 보다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것이다.

2. 규제완화와 개정 전기사업법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회사들의 사고방식은 정반대였다. 즉 전력의 안정공급 의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산이 먼저 선정되어야 하고, 그 자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원가방식이라는 요금결정 방식에 의해서 투입자본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상 담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밸런스 시트의 우측에서 경영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가 진전되면서 이 전력회사 특유의 논리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5월 14일에 개정 전기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3월경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요금제도의 개혁과 소매의 부분 자유화

먼저 요금제도가 개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합리화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추가분을 모두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환원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진다. 요금인하 원자(原資) — 투자나 용자의 기초가 되는 자금의 바탕 — 가 생긴 경우 일부를 경영의 자유재량으로 재무체질 강화에 충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 환원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이나 신규사업에의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매의 부분자유화에 따라 요금규제가 철폐되고 타 업종으로부터의 신규 참여 등이 가능해지면 전기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본이 확실하게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어진다.

4. 대차대조표를 보는 방식의 차이

즉 얻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며 동시에 자금회수의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전력회사에서도 밸런스 시트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을 필요가 생기는 한편 지금까지와 같이 밸런스 시트를 좌측에

서 우측으로 보는 것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밸런스 시트를 보는 방법만이 「보통의 회사」의 조건은 아니지만 앞서의 칸사이 전력 경영진의 발언은 종래의 전력경영과 「보통의 회사」 또는 지금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전력경영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훌륭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는지?

5. 「보통 주식회사」로의 탈바꿈

칸사이 전력이 1999년 6월부터 발전소와 영업소 등의 사업단위마다에 관리회계를 도입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미 반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관리회계를 도입한 발전소로부터는 수선비나 인원의 삭감뿐만 아니라 자산의 제각(除却)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투자에 대한 리턴이 각 사업소에 강력하게 의식되어 「보통의 회사」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전력회사가 보통의 회사로 탈피하는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기대조차 포기해버린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칸사이 전력과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회사도 나타난 것이다. 규제완화의 진전이 이와 같은 변화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자료 : 「닛케이 비즈니스」
1999. 6. 21) ■